

목포권

거동 불편자 투표 119 구급차 지원 목포소방서 '도우미제'

목포소방서는 "오는 25일 신안군수 재선거 당일 중증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노인 등을 위해 '119 선거도우미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표 하루 전까지 119 및 소방차출소에 원하는 투표 시간과 장소를 예약 할 경우 119구급차 등을 동원, 투표소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 목포소방서 관계자는 "예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구급차 3대, 소방차 1대와 구급대원 등 8명을 투입해 지도, 비금, 도초면, 흑산면, 안좌면에서 선거 도우미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목포소방서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도 이 제도를 운영, 25명의 거동 불편자들이 투표도록 도움을 준 바 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쫄쫄가무시증 주의보 목포보건소 철저예방 당부

목포시보건소는 이달 하순부터 쫄쫄가무시증 환자가 큰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예방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감염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쫄쫄가무시증은 털 진드기의 유충에 의해 감염되는데 주요증상으로는 감염 후 6일~18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과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쫄쫄가무시증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 활동시에는 긴옷을 입고 장화, 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들쥐의 배설물과 접촉하지 않아야 하며 ▲진드기에 물린 상처가 있거나 피부발진 및 급성발열 증상이 있으면 서둘러 치료를 받아야 한다. /목포=이상휴기자 sslee@

도청 옮겨오니 환경부담금만 가중...우회도로 만드니 읍내상권 침체

과실 없는 대형사업 무안주민 불만 고조

"내년 개항 무안공항도 무슨 도움 되겠나"

전남도청 이전과 무안을 우회도로 준공, 국제공항 개항 임박 등 무안지역에 대형 사업들이 완료됐거나 준공을 앞둔 가운데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대책이 없어 무안주민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청이 무안으로 이전한 지 1년이 지났으나 도청이전에 따른 혜택은 전혀 없이 환경개선 부담금만 2배 이상 올라 지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9월 무안을 우회도로가 준공되면서 무안읍을 통과하는 외지 차량들이 대폭 감소하면서 읍내 주유소와 상가의 매출이 최고 40%까지 떨어져서 일대 상가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 내년엔 무안국제공항이 개항될 예정이나 무안군은 이에 대비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도청과 무안을 우회도로 개통에 대비한 대안으로 도청 인근 일로읍과 삼양면 대안위 아파트 단지 건설과 시가지 정비 등의 제안이 지역사회 일각에서 제시됐으나 정책이 반영되지 못했으며 조

답대학과 연계한 무안을 대학촌 거리 조성도 무산됐다. 주민들은 항공관련 부품업체 유치나 공간 신설이 시급한데도 이를 추진할 인력이 없는데다 전남도지사와 무안군수의 당적이 달라 무안국제공항 개항 역시 지역에 별다른 파급효과가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임덕수 무안군의회 부의장은 "무안군에 전남도청에서 근무했던 경력자가 겨우 초임 과장 2명 정도에 불과해 전남도청과 군청간 사고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고 전남도와 정책협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제라도 무안개발공사 같은 전담 기구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호성(62) 무안군 병영회장은 "무안을 우회도로 개통으로 옷가게, 식당, 주유소 등 지역경제가 침체위기에 놓일 것이라는 전망은 8년전 공사 시작때부터 제기됐다"며 "지금까지 무대책으로 일관해 왔다"며 "선거용 소규모 사업에만 치중해 무안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무안 회산백련지 유리온실 건축문화대상 우수상

무안 회산백련지 수상유리온실이 건설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주최 '2006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준공 건축물 분야 우수상을 차지했다. 지난 2005년 8월 준공된 백련지 수상 유리온실은 거대한 연꽃이 새로 피어나는 듯한 우아한 곡선미를 한껏

살린 것이 특징. 연면적 388평의 2층 건물로 1층에는 연꽃을 바라보며 차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고품격 카페테리아와 함께 수련 전시관이 있으며 2층에는 다양한 연꽃과 열대식물을 감상할 수 있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목포시의료원 공공보건의료 전국 10위

복지부 114곳 평가 결과

목포시의료원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공공보건의료 시행결과 및 계획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전국 114개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2005년 전후를 기준으로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목포시의료원은 '2001~2005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종합평가'에서 80점을 받아 10위를 차지했으며 '2006~2010년 공공보건의료계획'에서는 전국 5위를 차지했다. 목포시의료원은 이번 평가에서 ▲보건소와 사회복지시설을 연계한 만성질환자

관리 ▲노인복지시설과 경로당 무료검진 및 진료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공보건의료사업은 고혈압과 당뇨병, 관절염, 백내장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들에게 저가의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목포시의료원은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고혈압·당뇨병관리사업을 비롯해 만성퇴행성관절염 관리사업, 의료소외계층 노인 무료개안수술, 재가노인을 위한 방문간호사업, 무료구강검사 등 총 5만2천230명을 대상으로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시행했다. 한편 지난 1904년에 개원한 목포시의료원은 현재 180병상 규모로 하루 평균 350여명의 환자들이 찾고 있다. /목포=이상휴기자 sslee@

목포 삼학문화축제

제 3회 삼학문화축제가 지난 21일 목포 삼학초등학교에서 개최됐다. 이번 축제는 이벤트 및 부대행사로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림을 그려주는 페이스 페인팅과 삼학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사진으로 보여주는 삼학도 사진전시, 먹거리장터, 종이화관련 프로그램 다양하게 펼쳐졌다. 삼학문화축제 추진위는 "삼학도의 전설과 지리적 역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역발전과 동민화합을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목포=이상휴기자 sslee@

무안 국내최대 태양광발전소 하루 4,000kW 한전에 판매 해제면에 완공 상업발전 시작



태양광 집열판(셀) 6천여개가 설치된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전경

국내 최대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최근 무안군 해제면에 완공 본격적인 전기생산에 들어갔다. 한라전력 무안태양광 발전소(사장 김병환)는 지난 7월 무안군 해제면 광산리에 부지 9천여 평을 확보한 뒤 민간자본 80여억 원을 들여 태양광 집열판(셀) 6천여 장을 설치했다. 이 발전소는 지난 17일부터 하루 4,000kW전기를 생산해 한해 1천507MW씩 15년간 한국전력에 전기를 납품하고 있다. 이같은 생산량은 1가구당 하루 전력 소비량을 4kW로 추산할 경우 1천 가구가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게 되는 셈이다. 무안 태양광 발전소의 기술은 독일의 쉐네크너스 회사가 참여한 시공했으며, 앞으로 15년간 A/S를 맡아 관리하게 된다. 김병환 사장은 "일조량이 풍부한데다 쌀 수입 개방으로 채산성이 떨어지는 농지 등을 시설 부지로 활용할 수 있어 때문에 사업 전망이 높다"며 "이곳 인근에 제 2의 발전소 건립을 검토 중이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신재생 에너지 체급 학습장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Table with 3 columns: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전북. Rows include various statistics like '여수', '광안', '보성', etc.

Advertisement for '25년 고객사랑!' (25 years of customer love!) for Gumsungwan Hotel and Arirang House, featuring a large orange and yellow graphic.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동부부동산건설(주)' (Dongbu Real Estate Construction Co., Ltd.)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in different areas like Gwangju, Mokpo, and Yeosu.